



#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제3세계 노동문제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응

오종석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박사과정(경제학))

## ■ 머리말

최근 제3세계 국가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을 불러온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첫째는 애플사(社)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국적 기업인 팍스콘(Foxconn)의 중국 공장들에서 2010년 1월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20차례의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17명이 숨진 사건이다. 그 원인은 살인적인 초과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sup> 팍스콘이 미국 소비자 2명 중 1명이 아이폰을 사용할 만큼 미국의 대표기업으로 부상한 애플의 하청업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적지 않았다.

둘째는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다카 외곽의 라나 플라자(Rana Plaza)에서 8층짜리 의류공장이 붕괴하여 1,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남긴 사건이다. 불법 건물 증축으로 인해 건물이 위험하다는 경고에도 공장주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대응하여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류공장이 선진국의 의류회사와 대형유통업체에 옷을 납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대형 사고는 방글라데시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근본적으로 서구의 기업들이 단가를 낮추고 납기를 맞추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불법잔업과 불법증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

1) 노동자들의 자살사건 이전에도 2011년 5월 20일 팍스콘 청두공장서 공장환경관리 부실로 인화성면지가 폭발하여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다. 특히 그곳에서 생산된 의류들 중 일부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월마트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선진국의 입장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다. 선진국으로부터 노동문제를 지적받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관심이 주권 침해 및 교묘한 통상압력이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경우 저임금노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선진국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고용기회를 제공받는 제3세계 저임금노동자들 자체라고 지적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sup>2)</sup>

다국적기업의 국제 공급사슬의 일부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국내 문제와는 달리 이해당사자가 불명확할 뿐더러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HSA)처럼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하청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해외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기반으로 한 자정능력을 기대하거나 비정부기구(NGO)가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선진국은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글을 통해 상기 두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CSR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 ■ 팩스콘과 애플

팩스콘 중국 공장의 연이은 노동자 자살사건은 무엇보다도 팩스콘의 생산제품 중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받았는데, 애플은 중국의 저임금노동착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비난에 직면하였고 기업 이미지는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2012년 1월 애플은 공정노동협회(Fair Labor Association)에 가입하였고 팩스콘에 대한 집중 감사

2) 폴 크루그먼(2002),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 김이수 역, 부키출판사.

를 의뢰하였다. 첫 번째 조사결과 발표 후 애플과 팍스콘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지적받은 360개 항목을 2013년 7월 1일까지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공정노동협회는 지난 1월 두 번째 감사에서 그 항목들의 98.3%를 개선하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 조사가 문제점을 과소평가한다는 비난 역시 적지 않다. 사실 공정노동협회는 제 3세계 노동을 착취한다고 비난받았던 나이키를 비롯한 몇몇 미국 의류회사들에 의해 1999년 설립된 단체인데, 그동안 감사를 비롯한 각종 활동들을 통해 문제의 공장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 단체가 문제되는 기업들의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팍스콘에 대한 감사 역시 무급 초과근무와 무급인턴의 사용 같은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 또한 보고서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애플은 하청공장들의 초과근무를 포함한 총노동시간을 60시간 이내로 묶어 두려고 하고 홈페이지의 홍보코너에 관련 자료를 공시하고 있는데,<sup>3)</sup> 2012년 12월 이후 애플의 하청기업들의 총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애플은 CSR 원칙을 천명하면서 공정노동협회를 매개로 중국 하청업체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의지를 보이는데, 이는 나이키와 같은 의류업체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청기업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애플은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팍스콘과의 독점적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생산의 일부를 다른 대만 업체로 다각화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 ■ 방글라데시 의류공장과 월마트

최근 방글라데시는 중국 다음으로 큰 의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아동노동의 사용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 붕괴는 어마어

3) <http://www.apple.com/supplierresponsibility/labor-and-human-rights.html>

마한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열악한 노동과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 이전인 2012년 11월 27일에도 방글라데시의 한 의류공장에서 불이 나 112명의 노동자들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공장의 14개 생산라인 중 다섯 개가 월마트와 그 자회사인 Sam's Club에 옷을 공급하였고, 월마트도 이를 인정하고 그 공장과 하청관계를 해지한 바 있다. 월마트와 또 다른 연루기업인 의류회사 갭(Gap)은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독자적인 안전프로그램을 도입하였지만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감시하에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었다. 나아가 공장건물붕괴 사건 이후에 많은 선진국 의류회사들이 방글라데시 공장의 안전규준을 지킨다는 협약서에 서명하였지만 월마트와 갭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충분하다며 서명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내 노동단체들은 방글라데시에 국가 차원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국제무역기구(WTO)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관세혜택을 받는 125개국 중 하나인데 방글라데시에 대해 우호적인 교역조건을 철회하자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노동부는 물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데, 교역조건 철회가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방글라데시의 건축법과 노동법 개선을 위한 압력수단 자체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sup>4)</sup>

## ■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그 한계

최근 제도경제학의 기업이론과 경영학에서 CSR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현실에서도 기업들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외부성 역시 법이 허용하는 수준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약 10%가량의 상장기업들이 자신들의 CSR 행위에 대해 자세히 공표하고 있으며,<sup>5)</sup> 여론조사 결과 또한 약 3분의 2

4) <http://www.nytimes.com/2013/05/31/business/us-pressure-rises-to-end-bangladesh-trade-status.html?src=recg>

5) Kotler and Lee(200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ing the Most Good for Your Company and Your Cause," Hoboken, N.J.: Wiley.

이상의 사람들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6)</sup>

이러한 CSR 행위는 전통적인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CSR 행위가 경영자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자, 종업원, 소비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전략적 CSR)라면 이윤극대화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sup>7)</sup> 특히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은 기업의 평판을 통해 이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윤극대화 목표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내적인 맥락에서 CSR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국제적인 맥락에서 기업의 국제 사회적책임(International CSR)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국제적인 CSR이 공공규제정책의 보완적 성격으로는 유의미하지만 그 자체로만 해당 국가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sup>8)</sup> 방글라데시의 경우와 캄보디아(그리고 베트남)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CSR에만 호소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캄보디아는 과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원하는 ‘캄보디아 공장개선 프로그램’ (the Better Factories Cambodia program)에 의해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즉 캄보디아 정부,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관련된 다국적기업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기업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 PPP) 정책을 통해 노동규준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향상을 달성하였다.<sup>10)</sup> 이처럼 기업의 자정능력에 기대하지 말고 국제기구와 국가를 매개로 한 공공규제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6) Environics International(1999), “The Millennium Poll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ecutive Brief,” Toronto: Environics International.

7) Kitzmueller and Shimshack(2012), “Economic Perspectiv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0(1), pp.51~84.

8) David Vogel(2006), *The Market for Virtue: The Potential and Limi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rookings Institution.

9) <http://economix.blogs.nytimes.com/2013/05/20/redeeming-bangladesh/?ref=business>

10) Anna Wetterberg(2011),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Labor Standards Governance: Better Factories Cambodia,”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No. 31.

및 팩스콘의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맺음말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제3세계에서 발생한 최근 두 건의 노동문제로 미국의 대표기업인 애플과 월마트가 비판을 받고 있다. 두 기업은 CSR 원칙을 천명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책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CSR 방식으로만은 제3세계의 노동문제가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문제와 달리 국제문제에 있어서 국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CSR을 통한 기업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같은 제3자의 개입이 절실하다 하겠다. 즉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지국가의 규제 노력을 동반한 국제노동기구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많은 CSR 전문가들과 캄보디아의 성공사례가 조언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역시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역시 현지의 노동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기업들의 사례는 해당 국가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반드시 이윤극대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다. **KLI**